

전북 '중원의 핵' 손준호 K리그1 MVP

감독상 3위팀 김기동... 영플레이어상 송민규 세징야·주니오·일류첸코·조현우 등 베스트 11

손준호(28·전북 현대)가 올해 프로 축구 K리그1(부리그) 최고의 별로 우뚝 섰다.

손준호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스웨덴 스벤스카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어워드2020에서 K리그1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손준호는 올 시즌 전북의 중원에서 굵은일을 도맡아 하면서 팀이 K리그1 최초의 4년 연속이자 역대 최다인 8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주역으로 활약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집계하는 부가 데이터에 따르면 손준호는 이번 시즌 프리킥(137개), 지상볼 경합 성공(75회), 패스 차단(171회) 등의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패스 횟수(1584개)에서는 2위였다.

그는 감독, 각 팀 주장, 미디어 투표를 합산해 환산한 점수에서 46점을 받아 주니오(울산 현대·44.83점), 세징야(대구FC·5.28점), 일류첸코(포

항 스틸러스·3.89점)를 제쳤다.

손준호는 시즌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 세징야, 한교원(전북), 팔로세비치(포항)와 함께 포함돼 2관왕에 올랐다.

주니오와 일류첸코는 나란히 베스트 11 공격수 자리를 차지했다.

수비수로는 강상우(포항), 권경원(상주), 김태환(울산), 홍정호(전북), 골키퍼로는 조현우(울산)가 시즌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감독상은 올해 리그 3위에 오른 포항 스틸러스의 김기동 감독에게 돌아갔다.

프로축구 역대 시상식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이 아닌 3위 팀 사령탑이 감독상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즌 팀 득점 1위(56골)와 함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로 이끈 김 감독은 합산 점수에서 38.09점을 받아 우승팀 전북의 조제 모라이스 감독(31.07점) 등 경



트로피에 입맞추는 손준호.

쟁자를 따돌렸다. 영플레이어상은 김기동 감독이 표방하는 공격 축구의 한 축을 담당한 포항의 송민규가 차지했다.

포항에서 데뷔 3년 차를 맞은 송민규는 올 시즌 27경기에 모두 나와 10골 6도움을 올려 엄원상(광주), 원두재(울산), 조규성(전북)을 제쳤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는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이



트로피 들고 웃는 김기동 감독. 연합뉴스

동국(전북)은 올해 개막전에서 펼친 '덕분에 세리머니' 사진으로 '베스트 포토상'을 받았고, 공모상까지 2개의 트로피를 챙겼다.

한편 K리그2의 주요 부문 시상식은 올 시즌 27경기에 모두 나와 10골 6도움을 올려 엄원상(광주), 원두재(울산), 조규성(전북)을 제쳤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는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이

한화, 주장 이용규 방출 "방향성 안맞다"

18연패 등 경기력 최하위 칼바람 줄줄이 이어질 듯

프로야구 KBO리그 한화 이글스가 주장 이용규(35)를 방출했다.

한화 관계자는 5일 "오늘 낮 이용규와 면담을 해 1년 추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며 "(이용규가) 팀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외의 결정이다. 이용규는 2019 시즌을 앞두고 한화와 2+1년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했다.

2019시즌엔 개막 전 트레이드 요청으로 팀 내 정계로 무기한 참가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올 시즌엔 제몫을 다했다. 올 시즌 12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6, 17도루, 60득점을 기록했다. 팀 내 야수 중 유일하게 규정 타석을 채웠다.

경기장 밖에서도 이용규는 팀의 중심 역할을 했다. 주장으로서 후배들

을 다독이며 팀 분위기를 이끌었다. 한화의 방출 결단에 물음표가 달리는 이유다. 더군다나 한화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없다. 지난 9월 박정규 전 대표이사가 팀 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한화 관계자는 "정민철 단장과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선수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 단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용규는 담담하게 한화의 통보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생각을 정리 중"이라며 "시간이 지난 뒤 인터뷰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의 칼바람은 이용규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는 올 시즌 프로야구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인 18연패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기력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근 야구계엔 한화가 30대 베테랑 다수에게 방출 통보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아쉽지만 이전 후배 선수들 위해 노력"

김문호 타격코치 지도자 변신

제주 출신으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에서 뛰던 외야수 김문호(33·사진)가 지도자로 변신한다.

김문호는 동원과학기술대 야구부 타격코치로 이르면 5일부터 합류할 예정이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동원과 기대는 지난 5월 야구부를 창단했다.

덕수고 시절 천재 타자로 불리며 많은 기대를 받은 김문호는 2006년 롯데에 입단한 뒤 오랫동안 자리를 잡지 못했다.

2016년 진가를 발휘했다. 김문호는 그해 14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5 7홈런 70타점 12도루를 기록하며 입단 10년 만에 롯데 외야 주전 한자리를 꿰찼다.

2017년에도 131경기에서 타율 0.292 2홈런 35타점 9도루로 순항했지만, 롯데가 2017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민병현을 영입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김문호는 2018시즌 46경기 출전에 그쳤고, 2019시즌에도 51경기에 나와 타율 0.243에 머물렀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방출된 김

문호는 올 시즌 한화와 계약해 '제기'를 노렸지만, 18경기 출전 기회를 받는 데 그쳤다.

김문호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야구를 통해 얻은 걸 이제는 후배 선수들을 위해 전하고 싶다"며 "선수가 아닌 코치 생활을 앞둔 만큼 다시 처음부터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문호가 동원과기대 코치로 자리를 옮긴 데는 이문한 동원과기대 감독과 인연이 작용했다. 이 감독은 롯데에서 운영부장으로 오랜 기간 일하며 프런트와 선수로 관계를 이어왔다.

한편 김문호는 신제주초등학교 재학시절인 1999년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남초등부 야구 제주선발팀의 금메달 영광을 일군 주역이다. 2005년 롯데에 지명되며 제주 출신으로 프로무대에서 맹활약중인 강민호(삼성)와 한술밥을 먹었다.

한편 김문호는 신제주초등학교 재학시절인 1999년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남초등부 야구 제주선발팀의 금메달 영광을 일군 주역이다. 2005년 롯데에 지명되며 제주 출신으로 프로무대에서 맹활약중인 강민호(삼성)와 한술밥을 먹었다.



한화 이글스 김문호 선수. 연합뉴스

'신계 전쟁' 메호대전 기대감 증폭

내달 9일 UCL 조별 최종전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무대에서 나란히 공격포인트를 따내며 내달 '메호대전' (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메시는 5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에서 열린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와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3차전 홈경기에서 전반 5분 자신이 유도한 페널티 킥으로 나서 선제골을 쏘았다.

전반 3분 36초 시점에서 안수 파티가 뒤로 내준 패스를 받은 메시는 페널티 지역 정면으로 쇄도하는 상황에서 키예프의 중앙수비수 데니스 포포프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4분 53초' 만에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한 메시는 바르셀로나 역대 최단 시간 페널티킥 득점의 주인

공이 됐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조인 유벤투스의 호날두는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치러진 페렌츠바로시(헝가리)와 G조 조별리그 3차전 원정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결승골 도움을 작성하며 팀의 4-1 대승에 힘을 보탤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앞서 치러진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에 결장했던 호날두는 3차전 출전으로 18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아 아케르 카시야스(전 레알 마드리드)의 20시즌 연속 출전(1999-2000시즌~2018-2019시즌)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호날두가 코로나19에서 탈출하면서 팬들은 지난 29일 무산됐던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메호대전'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졌다.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는 한국시간으로 12월 9일 오전 5시 캄노우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최종전을 치른다.



"들어가는 되는데..." 5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 코스에서 열린 2020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1라운드. 유소연이 9번 홀 퍼팅한 뒤 공의 궤적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20-2021 제주도민 제천방문의 해

1박2일 답답하다! 떠나자! 제천여행

매주 화,목,일요일 출발 (11/10부터)

내륙의 제주도, 슬로시티 제천
국내최대의 호수 청풍호와 케이블카
호수에 비친 단풍의 데칼코마니

제천시 관광미식과 043) 641-6702 | 제천시 제주홍보사무소 064) 900-8077

제천은 코로나 사회전파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제주연합패키지 299,000~ (단체버스투어)

가족안심패키지 399,000~ (4~6인 단동행사)

제1일 제천

제주공항-청주공항-임원지-역사박물관-호변 산책-중식(현지식)-청풍호 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옥순대교(옥순봉)-석식(현지 특식)-숙소

제2일 단양

조식-도담삼봉-천동굴(또는 온달동굴)-중식(단양 마늘정식)-단양강 만천하 스카이워크-약초술 담그기 체험(약초술 증정)-(제천역-청주공항역 열차 탑승)-제주공항-제주공항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박3일 및 단동행사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p>굿모닝제주투어 723-3350</p>	<p>늘푸른여행사 726-3344</p>	<p>FM여행사 702-1950</p>
<p>제주홍익여행사 746-2200</p>	<p>파랑새여행사 744-1233</p>	<p>현여행갤러리 725-0818</p>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차량료, 숙박비(4인 1실), 식사 3회 ●불포함내역 : 기사/가이드 팀 1만원, 호텔숙료(일부 항공편)